

정부부처 기술관련 주요정책 추진현황

● 국내개발 나노측정기술 국제표준 채택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공표, 전자산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2월 1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측정기술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에 의해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분야 국제표준 기술로 채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생산시스템연구본부 이학주(李學珠, 52) 박사팀이 개발해 온 나노측정기술 '띠급힘시험법'이 IEC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선정됐으며, IEC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표 했다고 밝혔다. 사전공표(pre-release)란 IEC에서 표준화 기술을 선정할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공표하는 절차를 말한다. '띠급힘시험법을 이용한 박막의 인장물성 측정' (IEC 62047-8 Ed. 1.0)이라는 IEC 국제표준 명으로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한 축인 나노메카트로닉스개발사업단(단장 이상록)의 연구성과로 지금까지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됐던 신뢰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제표준채택으로 우리나라는 13조5천억원(2010년)으로 추정되는 나노측정기술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 2010년 해외건설 수주 12.31일 현재 716억불 달성 - 2011년 해외건설 수주도 700억불 넘어설 것으로 전망 -

〈국토해양부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12.31일 현재 사상 최대 금액인 716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해외건설 수주도 고유가 추세와 신흥시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7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에는 419개사가 91개국에서 588건 공사 715.7억불을 수주하였고 이는 전년 수주금액(491억불) 대비 46% 증가한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중동지역 수주 비중이 66%(472억불)로 지난해(73%, 357억불)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비중은 25%(180억불)로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22%, 109억불)하였다.

국토부는 2011년에도 안정적인 고유가 추세로 중동 산유국에서의 플랜트 발주가 지속되고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해외건설진흥계획상 수주 목표인 700억불 수주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1년도 해외건설 전망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시장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800억불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이 실제 수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 기술관련 주요정책 추진현황

●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규모 증가**
-기업체수 2.2배, 고용인원 3.6배, 매출액 6.5배, 수출액 5.9배, 민간투자 5배 증가-

〈지식경제부 2011년 2월 14일〉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 기준)은 기업체수 2.2배, 고용인원은 3.6배, 매출액은 6.5배, 수출액은 5.9배, 민간투자는 5배로 크게 증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기업체수는 12% 증가한 215개, 고용인원은 29% 증가한 13,380명, 매출액은 58% 증가한 8조1,282억원, 수출액은 77% 증가한 45.8억불, 민간투자는 22% 증가한 3조 5,58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1년도 전망은 전년대비 고용인원은 28% 증가한 17,161명, 매출액은 78% 증가한 14조5,072억원, 수출액은 84% 증가한 84.2억불, 민간투자금액은 16% 증가한 4.1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인 (주)솔라앤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6개 신재생에너지원 220여개 제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다 강력하게 육성하기 위해, ‘11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전년대비 24.1% 증가한 1조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4천만원 배상 결정**
아파트 공사장 소음방지 철저해야

〈환경부 2011년 2월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4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95명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약 10m 떨어진 신청인의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8.0dB(A), 진동은 46dB(V)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지만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까이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